

# 토스증권 “리테일 1위 목표… 해외채권·파생상품 서비스 확대”

3년만에 당기순이익 15억 흑자  
수수료 뿐 아니라 만족도 높일 것  
“올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 목표”

“3년 만에 당기순이익 15억원으로 흑자 전환을 한 데다, 올 1분기도 아주 의미있는 호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연 토스증권 대표는 서비스 출시 3주년을 기념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올해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를 통해 리테일 부문에서 1위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수익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개인고객 거래 부문에 있어서 수수료 뿐 아니라 고객 만족도 측면에서도 1위를 차지하겠다는 계획이다.

## ◆WTS, 해외채권, 파생상품 등 서비스 강화

토스증권은 올해 상품·채널 서비스를 모두 확대해 기존 국내 및 해외주식 중심의 서비스를 넘어설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PC기반의 거래 시스템인 ‘웹 트레이딩 시스템(WTS)’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내놓는다. WTS는 토스 앱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 간편하게 실행이 가능하며 기존 모바일 기반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과의 연동을 통해 두 개 채널에서 각각 탐색 경험과 정보가 손쉽게 연결된다.

더불어 미국 주식 거래서비스를 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토스증권 기자간담회에서 김승연 토스증권 대표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탕으로 미국 우량 회사채까지 영역을 넓힐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개인(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회사채에 투자하고 싶더라도 종목·최소 투자 단위 등의 제한으로 직접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미국 회사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부 증권사에서 제한된 종목 안에서 투자가 가능하며, 이마저도 수천만원의 호가하는 최소 투자금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스증권은 투자 단위를 고객 친화적인 눈높이에 맞추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외 파생상품을 출시해 투자 선택지를 넓혀준다고 강조했다. 파생상품의 경우 증시 상승기와 하락기 모두 수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적은 금액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자 보호와 신규 투자자를 위한 교육 콘텐츠 또한 준비 중이다.

## ◆3년 만에 첫 연간 흑자 기록… 올해도 수익성·성장성 개선될 것

토스증권은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3년 만에 첫 연간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했다. 지난해 동안에만 약 100만명의 고객을 신규 유치해 올 3월 기준 580만 고객을 유치했으며 매달 토스증권을 찾는 고객(MAU)도 300만명 이상이다.

김 대표는 “올 1분기에 지난 한 해 당기순이익의 2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 토스증권은 증권사로서의 수익성을 증명했다면 올해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해 수익성과 성장성 모두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스증권의 지난해 연간 기준 국내외주식 거래 수수료 기반 당기순이익은 15억3100만원으로, 1분기에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KB증권, 국제 수준 안전·보건 체계 도입

국제표준화기구 ‘ISO45001’ 획득  
자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방침

KB증권은 공신력 있는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ISO45001’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공인하는 자격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국가 및 기업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세워진 기관으로 스위스에 본부가 있으며, ‘ISO45001’은 품질·환경·기술·시스템 등의 안전보건관리 분야 서비스에 대한 국제표준이다.

KB증권은 ESG경영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서 보다 객관적인 사회적 지표 기준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한층 더 발전하고자, 소셜 분야 세계적 권위의 ‘ISO45001’ 인증을 준비해 왔다. 이를 위해 전사의 안전·보건 관련 현황과 개선점 도출 및 관련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보완하며 꼼꼼하게 인증에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했고, 심사 과정을 거쳐 ‘ISO’에서 공인하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인 ‘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

KB증권은 이번 ‘ISO45001’ 인증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들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자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안전보건리스크의 정량적 평가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요건 및 요구사항을



지난 11일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오른쪽)와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기관인 저먼 서트인증원의 안상현 대표이사(왼쪽)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인증 획득을 기념해 KB증권 본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고려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KB증권은 국내의 협력회사, 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의 상생(相生) 경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작년에는 협력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경영 동향 및 트렌드 대한 강의를 통해 환경·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식을 공유했고, KB증권 본사의 방향성과 연계되는 해외 현지법인 ESG경영 방침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및 인권 등의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진 기업 수준의 경영 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ESG 경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 미래인재 육성 ‘DREAM’ 장학금 지원

거래소, 청소년·대학생 적극 지원  
최대 2년동안 800만원 장학금 등  
봉사활동·인재육성프로그램 참여

한국거래소가 자라는 미래인재들을 위한 다각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거래소는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취약계층 탁구 꿈나무 지원, ‘KRX DREAM 대학 장학생’ 사업 등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거래소 부산 본사에서 진행됐던 ‘2024년도 KRX DREAM 대학 장학생’ 장학증서 전달식은 장학생들의 자긍심과 건강한 성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신규 선발된(부산·서울 40명) 장학생들이 참석했다.

‘대학생 장학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5명 대학생들을 선발해 약 17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최대 2년 동안 총 800만원의 장학금 지원과 함께 비전 워크숍,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등 다양한 인재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지역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KRX 드림나래’ 후원금 3억원을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KRX 드림나래’ 사업은 2022년부터 충분한 준비 없이 자립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5년간 최대 3200만원의 자기개발비, 생활안정 자금과 자립교육, 진로 및 금융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도 보호종료를 앞둔 고등학생 3학년 10명을 선발해 발대식 및 드림나래 1~3기(30명) 연합 자립캠프를 실시했다.

거래소 측은 “앞으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꿈의 날개를 활짝 펼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달 탁구 국가대표인 임종훈 선수(KRX탁구단)도 취약계층 탁구 꿈나무들을 지원하고자 성금 1000만원을 KRX국민행복재단에 기부했다. 해당 기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초·중·고 탁구선수를 위한 장학금과 장비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신하은 기자

## 신한증권, 원화표시 롯데캐피탈 채권 특판

표면금리 1.677% 연 4회 이자 지급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SOL증권을 통한 원화표시 롯데캐피탈 채권을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판 대상 채권은 롯데캐피탈이

2020년 3월 13일에 발행한 채권으로 신용등급은 A+(한신정, 기준일 23.12.26)이며 2025년 3월 13일 만기이다. 해당 채권은 표면금리 1.677%로 연 4회 이자를 지급한다. 매수수익률은 연 4.6%대(3월 14일 기준)이다.

최근 발행되는 동일 종목 채권에 비해 낮은 표면금리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고객의 과표금액을 낮출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채권은 액면 1000원의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단, 판매되는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자산가격 변동, 신용 위험 등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신하은 기자

## “외국 금융사 사칭, 불법 투자 주의”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투자 전 제도권 금융사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이 연금형 달러 펀드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외국 금융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를 주의하라며 14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금융회사인 S사를 사칭해 외화 자산 분산 투자와 환차익으로 국내 펀드 대비 안정적인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들 불법 업자는 직접적인 투자권 유 없이 교묘한 방법으로 투자자를 현혹한다. 포털 사이트(블로그·지식인·카페)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연금형 달러펀드 홍보 영상이나 광고성 글을 게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유명 금융·재테크 관련 채널로 오인할 정도로 유사한 가짜 계정을 만들어 불법에 활용했다. 노출되는 썸네일(thumbnail) 이미지에는 유명 유튜버 사진을 도용해 해당 유튜버가 직접 만든 영상처럼 위장했고, 영상에 불법업자의 영상을 끼워 넣는 식이다.

실례로 20대 피해자 A씨는 올해 1월 경제·재테크 관련 유튜브를 시청하던 중 연금형 달러 투자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영상을 본 후 해당 제품에 관심이 생겼다. A씨는 포털에서 연금형 달러 펀드를 검색했고, 그 결과 S사가 국내에 연금형 달러 펀드를 출시했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글을 접한 뒤 투자를 결심했다.

최소 월 2.0~2.8%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달러 펀드에 2000만원을 투자한 것이다.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돼 있었지만, 블로그에서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라는 안내를 읽었기에 의심 없이 입금했다. 이후 A씨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임을 알게 됐지만 거절당했다.

금감원은 “이들은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불법금융투자업자이며 약정기간 후에는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소비자가 온라인에 게시된 재테크 관련 동영상, 게시글을 함부로 믿지 말고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